

‘재일’의 근거로서의 『화산도』*

곽형덕**

- I. 시작하며
- II. 탈-재일조선인문학으로서의 김석범 문학
- III. 『계간 삼천리』 활동과 『고국행』의 의미
- IV. 끝내며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한국어로 번역돼 나온 김석범의 『화산도』가 왜 ‘재일’의 근거가 되는 작품인지를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김석범이 조선총련을 떠나 다시 일본어로 창작을 시도하는 1968년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1988년까지의 행적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화산도』와 관련해 분석했다.

첫째, 김석범의 일본어 창작과 재일조선인문학 비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통해 이 작품이 추구한 보편주의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다. 『화산도』는 상실된 고향과 조국을 배경으로 ‘인간 회복’을 추구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작가가 추구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B5A02013776)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4S1A5B5A02013776)

본고는 학술심포지엄 『재일제주인문학에서 세계문학으로-역사의 난경을 넘어 평화와 상생을 향한 김석범 문학』(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탐라문화연구원 주최, 2016년 6월 22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대폭 수정한 것이다.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문사회과학부.

하러 했던 보편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독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둘째, 제일조선인이 중심이 돼 만든 잡지 『계간 삼천리(季刊三千里)』에서의 활동 및 『고국행』과 『화산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작가의 체험과 『화산도』와의 관련은 지금까지 1960년대의 김석범과 조선총련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고찰돼 왔는데 이것만으로는 『화산도』를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다. 『화산도』에 드러난 당조직 비판은 김석범이 조선총련을 탈퇴한 1968년 이후의 체험과 밀접히 연관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케다 세이지가 『‘재일’이라는 근거』(1983)에서 『화산도』를 현실적인 ‘재일’ 상황의 부인 내지는 목살¹⁾이라는 식으로 평가한 것을 비판적으로 독해했다. 『화산도』는 김석범이 재일을 살아가기 위해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닌 공생적 가치를 추구한 작품으로, 절실한 ‘재일’의 근거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 김석범, 화산도, 김시중, 다케다 세이지, 메도루마 순

I. 시작하며

『화산도』¹⁾가 한국어로 완역돼 나오면서 한국에서의 김석범 문학연구

-
- 1) 김석범의 장편소설 『火山島』은 「一九四九年頃の日記より」-「死の山」の一節より」(『朝鮮評論』創刊号, 1951.12)과 「鴉の死」(『文芸首都』1957.12)에서부터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이후 조선총련 조직의 문학잡지 『문학예술』에 조선어로 발표된 「화산도」(1965.5-1967.8, 총9회[중단])를 거쳐, 일본어로 『文學界』에 1976년부터 1997년까지 20년에 걸쳐 연재됐다. 연재 도중인 1983년 6월부터 문예춘추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해서 1997년 9월에 전 7권으로 완간됐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단행본으로 출간될 때 부분 개작이 이뤄졌다. 이와나미서점에서 주문 제작 방식으로 2015년 10월 『火山島』(1-7)를 다시 출간됐다. 또한 김석범의 많은 작품이 『火山島』와 직간접적으로 이어져 있다.

『화산도』는 ‘해방’과 전후로 역사적 시공간의 규정이 엇갈리는 ‘조선’(본토와 제주도)과 일본 사이의 뒤얽힘과 아이러니를 다양한 인물 군상의 궤적을 통해 미학적으로 현출해 내고 있다. 게다가 『화산도』의 개작 과정 전후로 역사적 사건과 시공간을 공유하는 다양한 작품(‘간수 박서방’, 「까미귀의 죽음」, 「관덕정」, 「똥과 자유와」, 「허몽담」, 「1945년 여름」, 「도상」 등)이 나뉘가지처럼 뻗어있다는 점을

는 비로소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게 됐다. 『화산도』는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일본어를 안다고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어 완역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화산도』번역자 중의 한 명인 김환기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1965년 처음으로 『火山島』가 문예동의 『문학예술』에 소개되기 시작해서 2015년 한국어판 『화산도』(전12권)가 출간되기까지 정확히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동안, 『화산도』에 대한 많은 평가가 이뤄져 왔다. 주지하다시피 『화산도』는 ‘해방’ 전후 조선과 일본의 역사적인 시공간을 ‘제주 4·3’(이하 4·3으로 약칭)에 초점을 맞춰서 쓰고 있듯이 정치와 역사와 문화적인 소재가 총망라돼 있다.²⁾ 『화산도』는 김석범의 사상적 비타협과 ‘고독’한 위치를 잘 대변해 주는 작품이다. 우선 재일조선인문학(‘해방’ 이후)을 보더라도 김석범은 협격(挾擊)을 당하는 위치에서 남과 북 양쪽 체제를 비판하며 도래할 통일된 ‘조국’을 꿈꾸며 글을 써왔다. 재일조선인 작가 가운데 이러한 사상적/문학적 실천을 해온 문학가는 그리 많지 않다. 재일조선인문학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김달수는 일본 사회가 그 때 그 때 직면한 문제 등을 다루는 등 시의성에 맞춘 작품 활동을 펼쳤으며 정치적으로도 협격을 당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³⁾ 허남기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이하 조선총련) 문예동 쪽에서 활동하며 북측의 문예정책을 거부하고 일본어로 작품 활동을 펼친 김시종, 김석범, 양석일 등의 작가를 견제하고 압박했다.⁴⁾

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 2) 제주 4·3문학에 대해서는 김동윤의 「4·3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제주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편, 제주대학교출판부, 2013.3)에 그동안의 연구 성과가 잘 정리돼 있다. 재일조선인에 의한 4·3과 관련된 문학에 대해서는 김환기의 「재일 4·3문학의 문학사적 위치와 의의」(『일본학보』69, 한국일본학회, 2006.11)을 참조.
- 3) 宋惠媛, 『「在日朝鮮人文學史」のために』, 岩波書店, 2014.12, 참조.
- 4) 吳世宗, 「許南麒の日本語詩についての一考察—歴史物語の構築と歴史からの撤退—」, 『論潮—特集金時鐘』第六号, 論潮の會, 2014.1, 198-199쪽. 오세종은 허남기가 이들 작가를 견제하고 압박했다는 식으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허남기의 시가 “근본적인 곳에서 ‘디아스포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의 시의 전개과정을 디아스포라 시로 읽는 것의 문제를 적확하고 예리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 내에서 재일조선인문학 전

전후 일본(어)문학 중에서도 『화산도』와 비교할 수 있는 작품은 많지 않다. 일부 평자들은 『화산도』를 오니시 교진(大西巨人)의 『신성희극(神聖喜劇)』(1960-1970년 사이 연재)이나 노마 히로시(野間宏)의 『청년의 고리(青年の環)』(1970년 완결, 원고지 16,000매[200자])와 비교하기도 한다. 『신성희극』은 군대소설이고, 『청년의 고리』는 피차별부락 해방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소설이며, 두 작가 모두 근대 일본의 사회 체제를 비판하는 위치에 서 있다.⁵⁾ 이는 일본인으로서의 위치를 성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위치(국적/시민권/언어 감각) 자체는 흔들림 없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김석범은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공화국으로 약칭)은 물론이고 재일조선인문학계에서도 확실한 위치를 확보한 상태에서 글을 쓴 것은 아니었다. 김석범은 ‘고향’인 제주도와 4·3에 대해 쓰면서도 이에 부채의식을 느꼈던 만큼 어디에도 안주의 땅은 없었다. 김석범은 ‘고향’과 ‘조국’이 상실된 것을 기반으로 소설 세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고독한 위치와 비타협이야말로 김석범으로 하여금 『화산도』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을 제공했던 셈이다.⁶⁾

체를 디아스포라 문학으로 읽어내고 있는 것이 범하고 있는 오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기도 하다.

- 5) 『青年の環』에 대해서는 中村福治가 『戰時下抵抗運動と『青年の環』』(部落問題研究所, 1986)를 냈다. 그런 나카무라 후쿠지가 『화산도』에 대한 연구서를 낸 것은 흥미롭다. 『火山島』와 『青年の環』를 비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6) 일본에서의 김석범 문학에 대한 평가는 ‘재일조선인문학사’의 구축(혹은 탈구축) 및 ‘조선적인 것’의 재현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뤄왔다. 그 중에서 이소가이 지로(磯貝治良)의 『始源の光 在日朝鮮人文學論』(創樹社, 1979.9)는 세대론적으로 재일조선인 작가의 작품을 분석해서 그 안에서 조선 민족의 ‘원형’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비해 오노 테이지로(小野悋次郎)의 『存在の原基—金石範文學』(1998.8)은 김석범의 개별 작품에 주목하면서 협력당하고 있는 작가의 위치를 응시하며 동시대적인 비평을 하고 있다. 나카무라 후쿠지(中村福治)의 『김석범 화산도 읽기-제주4·3과 재일한국인 문학』(삼인, 2001.4)는 해방 이후 한반도의 역사적 사실과 『화산도』를 대조 분석하면서 소설의 역사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위 세 논자의 평가는 김석범 소설이 재일하는 조선인의 삶을 그렸다고보다 ‘해방’ 이후 전개된 조선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특히 제주 4.항쟁)를 직시하는 것을 통해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는 것으로 범박하게 요약될 수 있다. 물론 이소가이 지로가 김석범 문학을 김사랑 문학의 연장선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나카무라 후쿠지가 역사와 픽션을 대조하고 있는 등

이 글은 김석범이 조선총련을 떠나 다시 일본어로 창작을 시도하는 1968년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1988년까지의 행적에 초점을 맞췄다. 김석범이 일본어로 글을 쓰는 것의 의미를 되짚는 작업으로부터 재일조선인 문학 비관으로 나아간 것의 함의를 고찰하는 것으로 『화산도』에 이르는 과정을 되짚어 보려 한다. 특히 재일조선인이 중심이 돼 만든 잡지 『계간 삼천리(季刊三千里)』에서의 활동 및 ‘고국행’과 관련된 기행문을 검토해서 『화산도』 2부와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화산도』는 상실된 고향과 조국을 배경으로 ‘인간 회복’을 추구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작가가 추구하려 했던 보편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독해 할 필요가 있다. 김석범이 오키나와 작가 메도루마 슌(目取眞俊)을 높게 평가한 것은 이와 연관된다. 『화산도』를 지역을 초월한 보편적 범주에서 읽어내는 작업은 4·3과의 관련성을 축소시킨다기보다는 이를 보편적인 문제로 심화 확대하는 가능성을 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작가의 체험과 『화산도』와의 관련은 지금까지 1960년대의 김석범과 조선총련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고찰돼 왔는데 이것만으로는 『화산도』를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다. 『화산도』에 드러난 당조직 비판은 김석범이 조선총련을 탈퇴한 1968년 이후의 체험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다시 고찰될 필요가 있다.

II. 탈-재일조선인문학으로서의 김석범 문학

김석범 문학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시기는 1968년 조선총련에서 나온 이후 조선어 창작에서 일본어 창작으로 방향을 전환한 후부터였다. 일본어로 시작돼 조선어로 그리고 다시 일본어로 향해간 김석범 문학의 궤적은 1968년 이후 공화국 계열의 조직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후 일

방법론적인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세 논지는 김석범의 문학 세계의 특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일본문학 연구를 대표하는 학회지 중인 하나인 일본근대문학회가 발간하는 『日本近代文學』(1964.11~)의 총목차를 살펴보면 김석범 및 『화산도』에 관해 단 한편의 논문도 게재돼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2016년 8월 현재).

본어 창작 쪽으로 급속히 기울어 갔다.⁷⁾ 특히 1960년대 무렵까지 조선어로 창작을 시도했던 김석범의 시도는 조선총련과의 대립으로 해산한 오사카 조선시인 집단 기관지 『진달래ヂングレ』(1953.2-1958.10) 동인(특히 김시종과 양석일)과는 변별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다시 말하자면 1950년대 중반 무렵부터 조선총련과 극렬하게 대립하다 오랜 세월 동안 핍박을 받은 김시종의 활동상과 비교해 보면, 1960년대 후반까지도 조선총련 내에서 활동한 김석범의 활동은 대단히 이채롭다.⁸⁾ 1950년대 중반 조선총련이 재일조선인작가들의 창작 내용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언어 선택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역설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요컨대 조선어로 창작을 하면 교조적인 글쓰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에, ‘노예의 언어’인 일본어로 작품을 쓰면 정치적 박해에는 시달리지만 사상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어로 쓸 것인가 일본어로 쓸 것인가라는 언어 선택의 문제는 단순히 민족성을 지킬 것인가 아닌가라는 단순한 차원에서 논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1970년, 김석범은 「언어와 자유-일본어로 쓴다는 것(言語と自由—日本語で書くということ)」(이하 「언어와 자유」)이라는 평론으로부터 시작해 “일본어로 조선적인 것을 쓸 수 있는 조건”⁹⁾

7) 김석범은 일본공산당을 탈당해서 1951년에 샌디아고 가서, 북조선 계열의 지하조직에 관계”하다가 조직과의 불화를 겪고 1954년에 오사카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의 경험은 그의 소설 곳곳에 녹아 있다. 이후 1960년대에는 조선총련에서 일하면서 조선어로 『화산도』(연재 중단)를 써서 발표하지만, 조선총련과 불화를 겪어 1968년 조직을 떠나게 된다. 김석범은 조선총련 탈퇴를 계기로 7년여 만에 『허몽담(虛夢談)』(1969)을 필두로 다시 일본어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김석범의 한국어 창작에 대해서는 김학동 「김석범의 한글 『화산도』론 : 한글 『화산도』의 집필 배경과 「까마귀의 죽음」 및 『火山島』와의 관계를 중심으로」(『일어일문학연구』 제62집 2권, 2007.8)을 참조.

8) 이에 대해서 필자는 심포지엄 『재일제주인문학에서 세계문학으로-역사의 난경을 넘어 평화와 상생을 향한 김석범 문학』 당시 북한문학 전문가인 김재용 교수에게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공화국과 재일조선인문학계(총련계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별고를 준비하고 있기에 여기서는 언급에 그친다.

9) 金石範, 「言語と自由—日本語で書くということ」 『ことばの呪縛』, 筑摩書房, 1972.7. 이 시기 김석범의 평론 활동에 대해서는 和田圭弘 「金石範の文學論につ

을 탐색해 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김석범은 김사량의 문학론을 근거로 삼아 일본어 창작의 의미를 되물었다.¹⁰⁾ 「언어와 자유」는 김사량의 일본어 평론 「조선문학풍월록(朝鮮文學風月錄)」(『文藝首都』, 1939.6)의 문제의식과 근거에서 맞닿아 있다.

나는 「물오리섬」을 읽고 나서, 잠시 동안 이 작품이 일본어로 씌어졌다는 것을 무심코 잊어버렸다. (...) 즉 독자인 내 상상력이 환기돼 그 상상력의 세계에 몰입한 나는, 그 이외의 것에 해당하는 그 상상력의 세계에 다리를 놓았다, 혹은 사르트르가 말하는 유동대리물(類同代理物, analogon)으로서의 언어, 즉 일본어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의 조선어적인 세계 가운데 내가 몸을 두고 있었다고 하겠다. (...) 그러면 어쩌서 독자 전체가 공유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것을 김사량은 쓰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작가 김사량의 상상력의 세계가 그러한 조선어 세계가 개재하고 있다는 것을 감득할 수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내가 「물오리섬」을 읽어나가면서 그 일본어가 내 내부의 조선어 세계와 교차해, 이미지가 그것이 의거하고 있는 일본어라는 언어로부터 떨어져 나가 어느 정도의 자유를 획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그 일본어를 통해 이끌린 이미지의 세계는 이미 일본어가 아니라고 해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미지의 세계로 이어지며, 일본어만의 절대적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의 지속인 것이다. 그것은 초월적인 상상력의 세계에 들어선 것을 의미한다.¹¹⁾

김석범이 말하듯 일본어로 ‘조선적인 세계’를 쓰면서 일본어의 자장을 벗어나 “초월적인 상상력”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김석범은 일본어로 조선적인 세계를 표현해 그것을 선취한 예로 김사량의 일본어 소설을 예로 들고 있다. 그는 김사량이 일본어로 쓰면서 일본어로부터 벗어난 지점에서 획득한 “초월적인 상상력”의 세계를 감득하고 조선어 작품 세계에서 일본어 작품 세계로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 이는 김사량이 1930년대 말에 조선어 창작에서 일본어

いて一一九六三年から一九七二年まで」(『言語社會』3, 一橋大學紀要, 2009.3)를 참조.

10) 이에 대해서는 줄고 「‘재일조선인’ 문학자들의 김사량문학 수용과정 연구- 1970년대 전후를 중심으로 -」(『국제어문』62, 국제어문학회, 2014)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11) 金石範, 『ことばの呪縛—「在日朝鮮人文學」と日本語—』, 筑摩書房, 1972.7. 초출은 「金史良について」(『文學』1972.2)이다.

창작으로 나아갔던 길과는 다소 다르지만, 방법론적인 차원에서는 맞닿아 있는 것이다. 김사량이 일본어 창작에 깨름칙함을 느끼며 자신의 의지로 일본어 창작으로 선회했다고 한다면, 김석범은 조선어로 발표할 수 있는 매체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어 창작 쪽으로 기울어져 갔다. 이를테면 김사량은 일본어 창작을 하면서도 조선어 창작을 함께 해나갔지만, 김석범에게 언어의 선택은 사상의 선택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었기에 ‘재일’하면서 조선어와 일본어 양쪽의 언어를 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김석범이 김사량의 일본어 소설을 하나의 전범으로 인식한 것은 “이미지가 그것이 의거하고 있는 일본어라는 언어로부터 떨어져 나가 어느 정도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음을 발견해 냈기 때문이었다. 이는 김석범이 쓰고 있듯이 “독자 전체가 공유할 수 없음이 분명”한 길이라는 점에서 독자의 전적인 공감을 얻을 수 없는 분열된 창작 방식이었다. 『화산도』 원문(일본어)에 드러나 있는 조선어적인 세계는 일본어 독자에게 신선함으로 다가갈 수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일본어로 씌어진 외국문학을 읽고 있는 듯한 ‘벽’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그것은 『화산도』 완역(한국어 번역본)에서는 한국어 독자에게 친근한 요인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화산도』는 일본어 독자는 물론이고 한국어 독자 모두의 기대치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한 내용적 측면의 부조화는 김석범이 김사량 식의 일본어 창작을 추구한 것에서 해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작가의 역량 부족으로 폄하될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김석범이 일본어로 창작을 하는 재일조선인작가들을 우호적인 눈빛으로 바라본 것은 아니었다. 김석범은 이들 중 일부가 일본어로 글을 쓰면서 일본문단 안에 안주하려는 경향은 물론이고 재일조선인문학과 일본문학의 위계구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날카롭게 비판했다. 특히 그 비판은 사소설적 경향을 보인 재일조선인문학자들을 향하고 있다.

민주주의 세계로 변했다고 해도 일본문단이라는 것은 줄곧 시가 나오야(志賀直哉)를 필두로 한 사소설(私小說)이 주류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 영향이 재일조선인문학에는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일조선인문학은 일본문학에 하위에 위치한 문학이 돼 있습니다. 재일조선인문학의 사소설은 그저

자신에 대한 것을 쓰기만 해도 제일 사회라고 하는 사회적 배경이 상당 부분 나옵니다. (...) 일본문단에는 조선 반도 지배에 대해 양심적인 영역에서 어떤 종류의 속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이 관계가 끊그러워 지게 되면 제일 측으로부터 전전으로부터의 문제를 탄핵하는 고발소설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응석입니다.¹²⁾

김석범의 재일조선인문학 비관은 일본문학과의 하위에 위치한 위계 구조만이 아니라, 재일조선인문학의 방법론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다. 김석범이 소설의 전체 구도 속에서 사소설적인 방법론을 취하지 않은 것은 그것으로는 제주도 도민(島民)의 이야기를 구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¹³⁾ 4·3 당시 학살당한 지하에 있는 사람들의 기억과 맞닿는 ‘개인’을 넘어서는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집단적 ‘무의식’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화산도』에 등장하는 ‘꿈’을 통한 기억의 공유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김석범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소설도 다수 쓰고 있기 때문에 사소설적인 방법론과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다. 하지만 김석범이 거부하는 사소설이란 체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픽션의 세계까지를 전부 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유리된 형식으로 개인이 좁은 반경에서 체험한 것을 재구성하는 사소설을 말하는 것이다. 더구나 『화산도』는 김석범이 4·3을 체험하지 않았지만 수 십 년간에 걸쳐서 구축해낸 소설 세계라는 점에서 사소설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김석범이 1980년 전후에 재일의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져 보이는 4·3을 그리려한 시도는 재일의 현실과 유리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다케다 세이지(竹田青嗣)는 『재일이라는 근거-이회성, 김석범, 김학영 (<在日> という根據—李恢成·金石範·金鶴泳)』(國文社, 1983.1)에서 『화산도』가 “‘재일’의 모든 체제를 ‘제주도’의 상황에서 의미 지으려는 작

12) 金石範著, 安達史人, 兒玉 幹夫編『金石範“火山島”小説世界を語る!—濟州島四・三事件/在日と日本人/政治と文學 をめぐる物語』, 右文書院, 2010.4, 196쪽. 김석범은 『왜 계속 써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김석범, 김시중 저, 문경수 편, 이경원, 오정은 옮김,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11, 170쪽)에서도 재일조선인문학이 사소설로 흘러간 것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13) 앞의 책, 『金石範“火山島”小説世界を語る!—濟州島四・三事件/在日と日本人/政治と文學をめぐる物語』, 104쪽.

가의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재일’의 실제 상황에 대한 묵살이라고 비판한다.¹⁴⁾ 김석범의 작품이 “‘재일’사회의 새로운 지층에 미치는” 것은 불가능 하며 “작가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민족’, ‘조국’, ‘민중’, ‘해방’과 같은 문제의 계통으로, 이 원근법은 ‘부인’, ‘차별’, ‘불우성’, ‘집과의 갈등’, ‘자기 확인’, ‘화해’와 같은 전후적인 ‘재일’의 삶의 영역을 억지로 지워버릴 수밖에 없”¹⁵⁾다는 것이다. 다케다는 김석범이 ‘청년’ 시절의 경험을 계속 쓰면서 ‘현재’의 재일조선인의 내면을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요컨대 김석범이 ‘현재’의 재일조선인의 삶과 역사와 유리된 ‘커다란 이야기’를 쓰면서 ‘현재’ 변화되고 있는 재일조선인의 ‘작은 이야기’인 내면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인 셈이다. 하지만 과연 김석범의 ‘원근법’이 다케다가 이항대립적으로 상정한 ‘민족’ 대 ‘자기 확인’을 그릴 수 없는 것인지도 의문이거니와, ‘민족’과 ‘개인’을 그렇게 깨끗이 잘라낼 수 있는 것인지도 회의적이다. 나카무라 후쿠지는 “그 기준(재일조선인의 존재를 그리는 것-인용자 주)에 맞지 않다고 해서 김석범의 시야가 좁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김석범에 대한 다케다의 입장이나 관점이 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¹⁶⁾라고 되묻고 있는데, 이는 다케다의 방법론적 협소함을 비판한 것이다.

그렇다면 김석범이 『화산도』를 통해 구축하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일본문학에 흡수하는 재일조선인문학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지역적 특색(locality)을 드러낸 문학도 아닌 보편적인 문학이었다. 그 자신이 커다란 비극 앞에서 니힐리즘을 넘어 섰듯이, 4·3이라고 하는 커다란 역사적 사건을 축으로 해서 인간의 문제에 천착한 것은 그 때문이다. 그것이 『화산도』가 사건 중심의 소설로 전개되지 않은 큰 이유 중 하나이다. 김석범은 특수성에 근거한 사건을 그리면서도 보편성에 호소하고 있다. 이는 한 지역을 그리면서 그것을 넘어선 문학/인류 보편으로

14) 다케다 세이지 지음, 재일조선인문화연구회 옮김, 『‘재일’이라는 근거』, 소명출판, 2016.3, 281쪽.

15) 앞의 책, 『‘재일’이라는 근거』, 124쪽.

16) 나카무라 후쿠지, 『김석범 『화산도』 읽기-제주 4·3과 재일한국인 문학』, 삼인, 2001. 4, 14쪽.

의 지향과 연계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는 메도루마 슌이 활약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타요시 에이키(又吉榮喜)의 소설을 읽어보면 오키나와의 지역적 특색이 관련된 화제가 농후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메도루마 씨도 철저히 지역적인 특색과 관련된 것을 쓰지만, 오키나와의 지역주의(localism)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메도루마의 소설을 읽어왔습니다. 그는 지역적인 것을 쓰지만 한 지역을 초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쓰기 위해서는 매체가 필요합니다. 그는 일본문단과 타협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독자가 있어서 돈을 벌수는 없지만 웬만큼은 된다고 해서 출판사가 책을 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¹⁷⁾

“지역적인 것을 쓰지만 한 지역을 초월”하는 창작이야말로 김석범이 메도루마 슌에 주목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해방 이후 제주에서 벌어진 4·3을 제주라고 하는 한 지역의 이야기로 시작하면서도, 이를 4·3을 모르는 일본어 독자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보편의 문제로 펼쳐 놓은 것이야말로 『화산도』의 문제의식 자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4·3을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수렴시키는 것을 피하고 인간 보편의 문제로 확장하는 것을 통해 협소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인류 보편의 문제로 확장 하는 방식에 다름 아니다. 바로 이 지점이 김석범이 일본문학과 관계 속에서 ‘하위’ 구조 속에는 위치하는 재일조선인문학의 사소설적 경향을 비판한 근거이자 자신의 문학을 일본문학의 하위가 아닌 독자적인 문학으로 성립시키려했던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보편적인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 4·3에 관심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당사자이기에 쓰고 있는 것으로 “4·3을 이해해 달라”고 독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4·3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은 배경으로 4·3과 관계가 있는 인간의 삶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¹⁸⁾

17) 앞의 책, 『金石範“火山島”小説世界を語る!—濟州島四・三事件/在日と日本人/政治と文學をめぐる物語』, 282쪽.

18) 상동, 70-71쪽.

이러한 방법론은 오키나와문학이 오키나와를 피해자로만 인식하지 않고, 인식의 지평을 세계와 아시아 안의 오키나와로 넓혀서, 오키나와의 가해자성을 인식했던 방법론과도 이어져 있다. 김석범이 4·3의 발발 원인을 새로운 제국 미국의 영향력 아래 남측의 신정부 수립 과정의 ‘국가 폭력’ 비판하면서도, 제주도 내 ‘무장대’ 측의 이데올로기적 경직성과 패착을 그렸던 것에도 이는 잘 나타나 있다. “지역적인 것을 쓰지만 한 지역을 초월”하는 보편성에 근거한 창작 방법은 지역문학 혹은 마이너리티 문학이 흔히 빠지기 쉬운 ‘지역주의’나 ‘자기 본위/피해자 서술’을 넘어서는 방법론이다. 김석범의 『화산도』는 보편성에 입각한 문학의 가능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김석범의 이러한 방법론적 특징은 조선총련과 갈등을 겪으면서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특히 문학을 정치(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해, 문학 그 자체가 정치(인간의 삶을 둘러싼 제 조건)라는 문학관은 조선총련과의 갈등 속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조형된 것이다.

Ⅲ. 『계간 삼천리』 활동과 『고국행』의 의미

지금까지 『화산도』에 드러난 ‘조직’ 비판은 1970년 이전 조선총련과의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 논의돼 왔는데 김석범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던 『계간 삼천리』 활동 및 김석범의 한국 방문을 빼놓고서는 이를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다.¹⁹⁾ 김석범과 조선총련과의 갈등은 일본어로 『화산도』를 연재할 당시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김석범은 1968년 이전에 조선총련의 교조적인 노선에 반발해 불화를 겪었는데, 조선총련 탈퇴 이후는 민단의 회유까지 더해져서 남과 북의 정치 공세에 놓이게 됐다.²⁰⁾ 한국 정부는 김석범에게 ‘성묘’나 ‘취재’ 활동 등을 이유로 내세워

19) 『화산도』에는 ‘조직’의 경직된 사고나 교조주의를 비판하는 부분이 자주 나온다. 이방근은 『화산도』(1부/완역본 제5권까지)까지는 ‘니힐리즘’과 ‘자유주의’에 입각해 ‘친일파’, 민족주의, 좌파, ‘남로당’, 빨치산 등 거의 모든 조직을 비판하는 입장을 보여준다. 이는 전술한 것처럼 김석범이 일본 공산당 및 조선 총련 등의 ‘조직’과 갈등을 겪었던 것과 깊이 연관돼 있다.

방한을 할 것을 몇 차례 권유하며 회유하려 했다. 이는 물론 재일조선인 작가의 방한으로 체제 우위를 선전하는 동시에 조선총련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으려 했던 것이기도 했다. 그런 만큼 『화산도』의 문제의식 중 하나인 정치/권력에 의한 인간 파괴로부터 인간 회복으로의 길은 김석범이 연재 이전만이 아니라 연재 중에도 현실 문제로 항상 맞닥뜨리고 있던 긴박한 문제였다. 일본어로 연재된 『화산도』 1부와 2부 사이에는 김석범이 재일하는 근거를 위협하는 체험이 가로놓여 있다는 점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화산도』 1부와 2부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이 소설은 최초 「해소(海嘯)」라는 제목으로 『문학계(文學界)』(1976.2-1981.8. 다만 1980년 12월 호에는 휴재)에 연재한 것으로, 제10장부터 제12장까지의 2천 매는 전작해서 『화산도』라는 제목으로 게재를 해, 1983년 6, 7, 9월에 차례대로 단행본으로 출판했다. 이것이 『화산도』 1부(전 3권)이다. (...) 『화산도』 2부는 (...)1986년 6월호부터 (...) 1995년 9월호 종료될 때까지 연재가 계속됐다(89년 1월호 휴재). 20년이라는 장기에 걸친 연재인 만큼담당 편집자가 계속해서 바뀌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시게마쓰 씨가 담당한 2부 개시 이후 씨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94년 3월까지 실로 8년 동안 함께 한 것은 필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이었다.²¹⁾

『화산도』 1부는 한국어 완역본을 기준으로 하면 5권 12장까지이고 2부는 5권 13장부터 12권까지이다. 김석범이 『문학계(文學界)』에 1부 연재를 끝낸 1981년 8월에서 2부 연재를 시작하는 1986년 6월호 사이에는 약 5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적 공백이 가로놓여 있다. 이 5년 동안의 공백은 『화산도』 연재 과정에서 자료만으로는 도저히 2부를 쓸 수

20) 오은영은 『재일조선인문학에 있어서 조선적인 것-김석범 작품을 중심으로』(도서출판 선인, 2015.5)에서 김석범의 ‘조직’ 비판이 관념적이라고 비판하고 있거나(101쪽), 김석범 작품에 표현된 ‘조선’은 “조선에 있는 ‘조선의 것’”(113쪽)이라고 하면서 “일상적인 조선인의 감각이 결여”(114쪽)돼 있다고 쓰는 등 다케다 세이지의 논의와 비슷한 지점에서 있다. 하지만 재일조선인에게 ‘조선’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관념’과 ‘자연’이라는 이항 대립적 구도 속에서 비판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이다.

21) 金石範, 「あとがき」『火山島 VII』, 文藝春秋社, 1997.9, 513-514쪽.

없었던 사정과 관련돼 있다. 문예춘추사판 『화산도』 단행본 제3권을 보면 김석범이 작품을 집필하면서 참조한 문헌이 정리돼 있다. 김석범은 『화산도』를 연재하면서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해 작품을 썼다.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화산도』 이전부터 그랬지만, 제 소설은 지금까지 픽션을 주제로 전개돼 왔습니다. 그런데 『해저로부터 지저로부터(海の底から、地の底から)』나 『만월(滿月)』에 이르면 한국의 정세 변화와 함께 4·3 사건을 실제로 체험한 분들의 증언을 여러모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쓰시마(對馬)에서 들은 이야기나, 그러한 한정된 것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증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²²⁾

증언의 부재는 4·3을 실제로 겪지 않은 김석범이 『화산도』를 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한 요인 중 하나였을 것이다. 『화산도』 1부에 4·3 이후 항쟁과 학살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이 많지 않은 것은 이와 관련돼 있다. 물론 단편소설 「1949무렵의 일지로부터 ‘죽음의 산’의 일절로부터(一九四九年頃の日誌より一「死の山」の一節より)」(『朝鮮評論』創刊号, 1951.12)나 「까마귀의 죽음(鴉の死)」(『文芸首都』1957.12)에도 4·3 당시의 학살과 관련된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 정도로는 대하장편 소설을 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1부를 쓰면서 김석범이 참고한 문헌²³⁾의 일부를 나열해 보자.

[표1] 『화산도』 집필 당시 참고문헌 목록

저자	서명	출판사	연도
金奉鉉, 金民柱 공편	『濟州道人民たちの<4·3>武裝闘争史』	文友社大阪	1963.
金奉鉉	『濟州道血の歴史—<4·3>武裝闘争の記録』	國書刊行會	1978
高峻石	『朝鮮·一九四五-一九五〇 革命史への証言』	三一書房	1972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 전략』	박영사	1974
이경남	「서북청년단」 『신동아』	동아일보사	1982.9

22) 앞의 책, 『金石範“火山島”小説世界を語る!—濟州島四·三事件/在日と日本人/政治と文學をめぐる物語』, 32-33쪽.

23) 金石範, 「主な参考文献」 『火山島 III』, 文藝春秋社, 1993.9, 566쪽.

内海愛子, 村井吉敬	『赤道下の朝鮮人叛亂』	勤草書房	1980
張壽根	『韓國の民間信仰—論考編』	金花舍	1973

『화산도』 1부는 제주도의 풍습과 제사, 해방 정국의 역사, 4·3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1부 참고 문헌은 『화산도』 12장까지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데, 특히 조선어(오사카, 서울 발행)와 일본어로 된 자료 양쪽을 보고 있는 점도 확인된다. 김석범이 4·3을 겪지 않고도 이를 이룬 시기에 조형해 낼 수 있었던 것은 상실된 고향에 대한 의지만이 아니라, 이룬 시기에 일본에서 출판된 4·3 관련 서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4·3에 ‘무장대’로 참여하다가 밀항해 일본으로 탈출한 김봉현의 책은 『화산도』 1부를 쓸 때 상당히 참고가 됐을 것이다. 김석범은 1부를 쓰며 『동아일보』를 1948년 1월부터 6월까지 구해서 참고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다만 『화산도』 1부를 연재할 당시에는 한국 정부의 검열과 탄압으로 증언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학살과 관련된 서술은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²⁴⁾ 이러한 문제로 김석범은 1부를 쓰는 동안에도 한국에 가지 않고서는 『화산도』를 완결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고향 상실자라고 부르고, ‘이데아’로서의 고향, 조국도 지금은 내 가슴에서 화석이 됐노라고 전술한 「재일의 허구(在日の虛構)」에 쓴 적이 있다. “고향에 가고 싶은 것은 이제는 향수 때문이 아니다. 그러한 심정적인 것은 내 내부에서 이미 죽은 지 오래다.” 제주도는 그저 ‘취재’를 위해서만 가고 싶은 곳, 갈 필요가 있는 곳이었다. 고향 제주도를 주로 ‘4·3사건’을 테마로 한 작품을 쓰고 있는 사정에서도 그랬지만, 특히 장편 『화산도』 연재 집필(『文學界』 1976.2~)를 시작하고부터는 작품의 무대인 현지 제주도나 한국에, 그곳이 설령 옛 모습 그대로라고 하여도, 다녀오지 않고서는 작품을 계속 쓰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었다. (...) 2부 집필은 어찌 해도 한국에 다녀오지 않고서는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²⁵⁾

24) 김동진, 「제주 4·3역사자료의 수집 현황과 과제」 『제주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편, 제주대학교출판부, 2013.3, 참조 제주4·3 관련 증언이 나오는 시점은 ‘6월 항쟁’ 이후인 것을 알 수 있다.

25) 金石範, 『故國行』, 岩波書店, 1990.8.

김석범은 제주도나 한국에 다녀오지 않고서는 작품의 ‘사실성’을 살릴 수 없음을 피력하고 있다. 그 만큼 1946년 여름 일본으로 밀항한 이후 1988년까지 한국에 다시 돌아가지 못했던 ‘재일’의 시간은 ‘고향’의 세부 까지를 생생히 기억하기에는 긴 세월이었다. 하지만 김석범은 『화산도』 집필을 위해 취재차 한국행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자신의 한국행이 한국 군사정권에 이용되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화산도』 1부를 연재하고 있던 1981년 2월 『계간 삼천리』 편집위원이었던 김달수로부터 “재일조선인 수형자에 대한 청원”을 목적으로 한 한국행에 동행해 줄 것을 요구받지만, 그는 『계간 삼천리』 편집위원으로 한국에 가는 것을 거부한다.

제가 편집 위원과 방한하는 것에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명목이 어떻든지 간에 잡지 『계간 삼천리』를 “기념품”으로 한국에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 한국에 다녀오는 것으로 『삼천리』는 전환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지금까지 지켜온 입장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남’에 대해서도 ‘북’에 대해서도 ‘알맹이가 빠진’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지요. 쌍방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무너지고, 마침내는 한국 정부 쪽으로 기울어 가게 됩니다. 편집위원들은 그것을 부정했지만, 그 후 그들의 족적은 부정한 그대로는 되지 않습니다.²⁶⁾

『계간 삼천리』 편집위원의 한국 방문은 김석범이 우려했던 그래도 한국행을 강행한 편집위원들이 표방했던 ‘청원’과는 무관하게 한국 정부의 반공 이데올로기의 선전 재료로 활용되는 결과로 귀결됐다. 한국행 이후 “통일된 조선의 실현”을 목표로 창간돼 남도 북도 아닌 중립을 견지하던 『계간 삼천리』²⁷⁾는 김석범에 따르면 급속하게 친 한국적인 색채를 강화해 갔다. 김석범이 『화산도』 1부 집필 중에 작품 완결을 위해 한국행을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식하면서도, 1981년에 찾아온 한국행의 ‘기회’를 과감하게 거부한 정당성은 사후적이기는 하지만 입증된 셈이다.

『화산도』 1부와 2부를 비교해 보면 2부에서는 4·3이 본격적으로 전

26) 상동.

27) 김환기, 「문예잡지 『三千里』와 재일코리안의 문화 정체성-문학텍스트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104, 한국일본학회, 2015.8, 참조.

개된 이후 토벌대와 무장대의 충돌을 비롯해 민간인 학살이 전면에 등장한다. 특히 2부 끝으로 갈수록 제주도에 관한 묘사와 사건이 긴박하고 사실적이며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김석범의 한국 방문과 연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김석범은 1988년 6월 『화산도1-5』(이호철, 김석희 옮김, 실천문학사)와 『까마귀의 죽음』(김석희 옮김, 실천문학사) 출간 기념회에 맞춰 방한하려 했지만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해 11월 40여년 만에 다시 ‘고향’ 땅을 밟았다. 22일에 걸친 방문 기간 동안 그는 안기부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서울, 광주, 목포, 완도, 제주 등지에서 다수의 작가와 지식인들을 만났다. 김석범이 1988년 11월 한국을 방문했던 시기는 『화산도』 2부를 연재하던 당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방문이 『화산도』 2부의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가정해 보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²⁸⁾ 『화산도』를 완결하면서 김석범이 참고한 문헌을 보면 한국행 이후에 4·3증언과 관련된 문헌이 추가돼 있다.²⁹⁾ 2부의 종장으로 가면 갈수록 4·3과 관련된 학살에 관한 서술이 구체성과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김석범의 한국행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특히 김석범이 『화산도』 2부에 해당되는 13장부터 종장까지 쓰기 위해 참고문헌만으로는 그려낼 수 없는 ‘현장’의 토포스를 체험하려 했다. 김석범에게 제주도는 그의 말 그대로 영원히 상실된 ‘고향’으로 “존재의 강렬한 욕망의 대상”³⁰⁾으로 작가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고 있었다. 김석범에게 ‘고향’ 제주도는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요동치며 배양되는 것으로 “상실된 조국(‘조선’)과 등가”로 “고향을 통해 조국을 자각하기는 하더라도, 동시에 조국 상실의 의식이 없었다면 설령 제주도를 고향으로 삼는 의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다른 것”³¹⁾으로 존재하는 것이었다. 상실되었기에 더욱 강렬히 존재하는 ‘고

28) 김석범은 『화산도』 취재를 겸해 1996년 10월 ‘한민족문학인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해 20일 동안(열흘은 제주) 머물렀다.

29) 金石範, 「主な参考文献」『火山島 VII』, 文藝春秋社, 1997.9, 518쪽. 참고문헌의 일부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기영, 『순이삼촌』, 창작과 비평사, 1979: 아라리연구원, 김명식 편, 『제주민중항쟁1-3』, 소나무, 1988-89: 4·3연구소편 증언자료집, 『이제사 말해준다 1-2』, 한울, 1989: 오성찬 채록·정리, 『한라의 통곡소리』, 소나무, 1988.

30) 金石範, 「濟州道と私」『新編 「在日」の思想』, 講談社, 2001.5, 229쪽.

향’ 제주도는 상실된 ‘조국’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였다. 김석범이 재일하면서 ‘정치’(김석범에게 ‘정치’는 정치 현실의 정치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측의 권력이다)로 인해 파괴된 인간의 회복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바다 건너 저편의 상실된 ‘고향’을 향한 재일의 사상을 고독 속에서 견지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김석범의 ‘고국행’은 존재하지만 상실된 것, 혹은 상실됐으나 존재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을 넘어선 보편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IV. 끝내며

이 글에서 『화산도』와 관련해 김석범의 1980년 전후의 행적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다케다 세이지가 『‘재일’이라는 근거』(1983)에서 김석범의 『화산도』를 “현실적인 ‘재일’ 상황의 부인 내지는 묵살”³²⁾이라 평가하고 있는 것에 느낀 위화감 때문이었다. 다케다가 ‘재일’이라는 근거로 제시한 실존주의적 고뇌(특히 김학영에 공감하는)는 형태는 다르지만 김석범에게도 더욱 첨예한 형태로 존재했다는 점에서 이런 평가는 정당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다케다가 김석범, 이회성, 김학영의 ‘재일’이라는 근거를 1980년대 일본 사회와 연관시켜 그 ‘실존’의 양태를 분석한 것이었다면 이러한 위화감은 없었을 것이다. 다케다는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을 하나의 궁극적인 전망으로 수렴시키는 것이 어려워진”³³⁾ 1980년 전후, 김학영 문학의 실존적 불우성에 주목하며, 김학영 문학이 “북이나 남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문제 규범을 처음으로 혼들어 놓은”³⁴⁾ 것을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화산도』의 이방근을 보더라도 인간의 사상이 교조주의로 수

31) 앞의 책 『故國行』, 113쪽.

32) 다케다 세이지 지음, 재일조선인문화연구회 옮김, 『‘재일’이라는 근거』, 소명출판, 2016.3, 281쪽.

33) 상동, 237쪽.

34) 상동, 231쪽.

럼되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인물로 작품 말미에서는 ‘혁명’의 편으로 이동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그 또한 다른 양태의 실존적 고뇌로 인해 끝내는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된다. 김학영 문학에 나타나는 새로운 재일 세대의 실존적 불우성은 ‘민족적인 것’의 풍화와 일본 사회로의 ‘동화’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던 고도성장기 일본을 배경으로 볼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규범으로 온전히 수렴되지 않고 충돌하는 개인(‘청년’)의 내면과 불우성이야말로 근대문학이 그려낸 주제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김학영 문학은 새로운 재일조선인문학의 장을 열어 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석범 문학이 “현실적인 ‘재일’ 상황의 부인 내지는 목살”이라는 식으로 평가받는 것은 정당한 평가라 할 수 없다. 김학영의 『얼어붙은 입』에 등장하는 ‘말더듬이’ 청년의 고뇌 만큼이나, 『화산도』의 이방근, 남승지, 양준오 등의 자신의 존재를 둘러싼 고뇌 또한 ‘재일’의 역사 속에 조형된 실존적 고뇌의 다른 양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느 한쪽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한쪽은 폄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물론 다케다의 논의 중에서 『화산도』가 “재일조선인 혹은 전후 시민사회를 살아가는 일본인을 향해 세계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태도를 묻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작품의 극한 상황(혁명 측에 서서 민중 속에 자신을 던질 것인가 아니면 도망칠 것인가)을 재일조선인사회가 직면했던 ‘정치’와 맞물려 해석한 것으로 이 작품이 김석범이 재일하는 근거 중 하나였음을 잘 드러낸 것이다.³⁵⁾

다케다 세이지가 『‘재일’이라는 근거』를 발표한 것은 김석범이 『‘재일’의 사상(「在日」の思想)』(筑摩書房, 1981)을 발표한 2년 후다. 김석범에게 ‘재일’의 사상은 “재일조선인을 형성하는 역사적 과정”³⁶⁾인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라는 소산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 해방 이후 ‘조선’의 역사를 비추고 도래해야만 하는 통일된 ‘조국/고향’을 문학으로 선취해내는 것이었다. 또한 김시종이 일본어에 맞붙어서 살아야만 하는 “재일을 살아간다(在日を生きる)”³⁷⁾고 쓴 것이나, 다케다가 재일의 ‘근거’를 묻고 있는 시기는 ‘민족적인 것’이 재일조선인 사회

35) 앞의 책 『‘재일’이라는 근거』, 280쪽.

36) 앞의 책 『新編 「在日」의思想』, 14쪽.

37) 김시종, 「시인의 말」, 『장편시집 니이기타』 글누림, 2014.

안에서 풍화돼 가는 현실을 인식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김석범의 ‘재일’의 사상과, 다케다의 ‘재일’이라는 근거는 일본 사회 안에서 풍화돼 가는 재일조선인의 현실에 대한 비평적 대응의 한 양상이었다.

대체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을 살아가는 근거, 혹은 사상이나 인생론적인 논의라면 그렇다 쳐도, ‘재일’을 살아간다는 것, 그 근거 운운하는 문제 설정의 방식은 일반에게도 그리고 조선인인 내게도 그다지 익숙한 것이 아니나, 사태는 그러한 추세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만큼 재일조선인의 전면에 등장한 2, 3세의 문제의식을 그로부터 읽어낼 수 있다. 젊은 세대에게 ‘재일’을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을,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 동의어가 돼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물음의 언어가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개인의 산발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일본에서의 이민족 집단으로서의 재일조선인의 존재성이 발휘되는 물음이기 때문이다.³⁸⁾

이 시기 김석범이 ‘재일’의 사상을 제시한 것은 2세 3세의 재일조선인의 존재론적 물음이 “‘재일’을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을,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 동의어가” 되는 현실에 대한 이의 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민족의 집단적 기억과 역사성 대신에 개인의 불우나 내면의 문제를 묻고 있는 방식이 김석범에게는 일본 사회 내의 재일조선인이라는 존재의 근원을 어떤 의미에서는 불문에 부치는 방식으로 비쳐졌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김석범은 재일조선인의 존재의 근원을 묻는 방식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일본 사회 내의 “이민족 집단으로서의 재일조선인의 존재성”을 묻는 방식이었다. 그런 점에서 김석범과 다케다 세이지는 서로에게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역사체험 및 세대론적인 차이만이 아니라 1980년대의 사회상과 시대상이 투영된 것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시기에 개인의 역사성을 끝까지 추구한 『화산도』는 김석범이 제시한 ‘재일’의 사상인 동시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재일’이라고 상대화해 거리를 두고 말할 수 없는 ‘재일’의 근거였다. 이는 남과 북에서 ‘협격’을 당하는 위치에서 양

38) 金石範, 『新編「在日」の思想』, 講談社, 2001.5, 15쪽.

쪽 체제를 다 비판하고, 일본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이민족 집단으로서의 재일조선인의 존재성”을 첨예하게 인식할 수 있는 문학적 실천이기도 했다. 그것은 물론 영원히 상실된 ‘원풍경’으로서의 제주도를, 경험하지 않은 4·3을 통해 쓴다고 하는 역사적 부채의식이 동반된 것이었다. 한 때 공명했던 공화국으로부터 이탈한 후 통렬히 그 체제를 비판(한국의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한 김석범은 남과 북 양쪽 체제를 다 비판하면서 가상의 통일 ‘조국’을 지향해 갔다. 『화산도』는 그러한 김석범이 자신의 ‘재일’의 근거를 확보해 나갔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차 자료

- 金石範, 『ことばの呪縛』, 筑摩書房, 1972.7.
金石範, 『火山島』전7권, 文藝春秋社, 1983-1997.
김석범, 『화산도』전12권, 보고사, 2015.10. (한국어본)
金石範, 『新編 「在日」の思想』, 講談社, 2001.5.

2차 자료

- 김석범, 김시중 저, 문경수 편, 이경원, 오정은 옮김, 『왜 계속 써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11.
다케다 세이지 지음, 재일조선인문화연구회 옮김, 『‘재일’이라는 근거』, 소명출판, 2016.3.
나카무라 후쿠지, 『김석범 『화산도』 읽기-제주 4·3과 재일한국인 문학』, 삼인, 2001.4.
小野悌次郎, 『存在の原基—金石範文學』, 新幹社, 1998.8.
金石範著, 安達史人, 兒玉 幹夫編, 『金石範“火山島”小説世界を語る!—濟州島四・三事件/在日と日本人/政治と文學をめぐる物語』, 右文書院, 2010.4.
宋惠媛, 『「在日朝鮮人文學史」のために』, 岩波書店, 2014.12.
곽형덕, 「‘재일조선인’ 문학자들의 김사량문학 수용과정 연구- 1970년대 전후를 중심으로 -」, 『국제어문』 62, 국제어문학회, 2014.
김학동, 「김석범의 한글 『화산도』론 : 한글 『화산도』의 집필배경과 「까마귀의 죽음」 및 『火山島』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제62집 2권, 2007.8.
김환기, 「문예잡지 『三千里』와 재일코리안의 문화 정체성-문학텍스트를 중심으로」, 『일본학보』104, 한국일본학회, 2015.8.
和田圭弘, 「金石範の文學論について—一九六三年から一九七二年まで」, 『言語社

會』3, 一橋大學紀要, 2009.3.

吳世宗, 「許南 麒の日本語詩についての一考察—歴史物語の構築と歴史からの撤退—」, 『論潮—特集金時鐘』第六号, 論潮の會, 2014.1.

Abstract

Reading Kazanto as a Foundation of Zainichi

Kwak, Hyoung-Duck*

This research seeks to investigate Kim Sok-pom's epic novel *Kazanto*, written from 1960s to 1990s, in the respect of a foundation of *zainichi*. Considering that Kim Sok-pom had been at feud with 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it was not surprised that he attempted Japanese writing since he withdrew from the association. In this article, I examine below two aspects by considering *Kazanto*.

First, what I found most intriguing in Kim Sok-pom's trajectory in 1970s and 1980s was his Japanese writing and criticism toward Korean Japanese literature in terms of universalism. I suggest that *Kazanto* should be read in the perspective of universalism rather than localism or singularity.

Second, I analyze connection between Kim Sok-pom's activities in the magazine *Kikan Sanzenri* and *Kazanto*. It is hard to understand *Kazanto* when one only focuses on feud between the General Association and Kim Sok-pom because it depicts a long-running conflicts between them until 1980s. Criticism against authority in *Kazanto*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Kim's experience since Kim he left the General Association in 1968.

In the above analyses I re-illuminate *Kazanto* from criticizing Takeda

* KAIST, Dept.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eiji's book 'ZAINICHI' AS FOUNDATION. It is not difficult to see that Kazanto is the foundation of Kim's being of zainichi because it does not take the side between North and South. Rather Kazanto severally criticizes both sides in terms of restoration of humanity.

* Key words : Kim Sok-pom, Kim Sijong, Takeda Seiji, Medoruma Shun

교신 : **곽형덕** 435-060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대림이편한세상 107동 703호
(kwak202@gmail.com)

논문투고일 2016. 08. 31.

심사완료일 2016. 10. 04.

계재확정일 2016. 10. 07.